

‘역사는 경험주의’, 실천하기 위해 말 타고 뗏목 탄다



우리나라 해양사 연구는 동국대 윤명철 교수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발간된 《고구려 해양사 연구》에서 알 수 있듯 반도사관을 넘어 육지와 바다를 역사의 대상으로 해석하는 해륙사관을 토대로 한 고대 해양사 연구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이러한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1994년 윤 교수가 <고구려 해양교섭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해양교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옛 고구려 땅에 갈 수 없다보니 남들이 연구한 학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한의 학자들이 고구려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1994년 이후의 일입니다. 흔히 압록강을 국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가서 조사해 보니 청계천처럼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이더군요.”

다른 학자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부족한 사료를 뒤적이는 사이 윤 교수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직접 말을 타고 뗏목을 타고 고구려의 옛 땅과 바다로 갔다. 흙먼지 이는 말 위에서, 비바람 치는 뗏목 위에서 그는 고구려 사내로서 그 시대를 살았다. 1982년 한·일 역사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대한해협을 건너기 시작한 윤 교수는 1995년엔 고구려인들의 기마驍馬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43일 동안 말을 타고 중국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는 등 자신의 모든 연구의 바탕을 현장답사와 고증에 두었다. 대학 탐사부 출신인 윤 교수의 역사학은 철저히 이러한 경험주의에 기초한다.

“왜 위험하게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양 주도권은 결국 길싸움이었기 때문에 먼저 해류와 바람에 의지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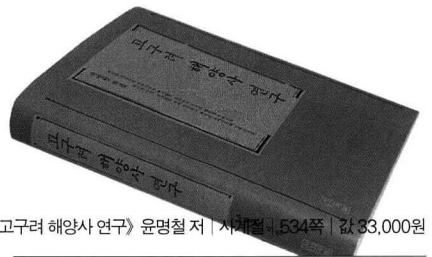
바닷길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뗏목으로도 항해가 가능하면 동력이 없었던 그 시대에도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해양문화의 메커니즘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상상력은 사료, 유물, 고증 등 그 파편을 통해 있을 만한 사실을 추적하는 것으로 현장에 살을 섞을 때 그러한 상상력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윤 교수는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잇는 고대 해상로를 따라 뗏목 장보고호를 타고 오던 중 불현듯 깨달을 수 있었다. ‘무정부성, 불보존성, 그리고 그리움, 우리 문화의 원류는 이러한 해양문화구나’ 라고.

윤 교수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말 타고 고구려 가다》《바다는 문화의 고속도로였다》《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체제》《장보고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등의 책과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엔 나온 《고구려 해양사 연구》는 1994년도에 발표한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개정판 해양사 연구서라고 보면 된다.

윤 교수가 직접 ‘체험’ 한 1,500여 년 전 남만주로 가보자. 그는 598년부터 70여 년간은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였다고 말한다.

“고구려 영양왕이 중국 요서지방의 영주를 공격했다가 수나라 문제의 30만 대군에게 보복공격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승리는 1만 명에 불과했던 고구려에게 돌아갔지만 결국 이로 인해 양국의 패권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국



《고구려 해양사 연구》 윤명철 저 | 서적형식 534쪽 | 값 33,000원

입장에서는 해양로를 장악하고 있던 고구려를 꺾지 않고서는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절대 잡을 수 없었고 수나라 양제와 당나라 태종·고종으로 고구려 침공의 바통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역사교과서에서 익히 배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나 양만춘의 안시성 싸움 등은 이 시기에 일어난 전투였다. 하지만 윤 교수는 육상에서 일어난 전투 이상으로 중요한 전투가 해상에서도 있었다고 말한다. 결국 당시의 전쟁은 단지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와 그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중국, 그리고 틈새 이해관계가 얽힌 백제, 신라를 비롯해 말갈, 거란, 일본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국제전쟁이었던 셈이다.

수·당과의 전쟁 이전에도 이미 고구려는 요동반도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발해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고, 산둥반도로 연결되는 수로망을 장악하였다. 평양성으로의 천도 또한 황해의 해상권 확보를 통하여 외교권 장악을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새롭게 복원한 사실을 통해 그가 강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역사학은 미래학입니다. 문명의 전환기, 세계 질서의 재편기, 민족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을 5,6세기 동북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도권을 잡아야 다가올 시대에 주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르게 우리 역사를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아시아 중핵 중심에 놓인 우리 한반도가 몰류

의 중핵역할을 함으로써 고구려처럼 해상 주도권을 쥐고 ‘교류사’를 주도할 수 있다는 동아시아중핵 중핵조정론東亞地中海中核調整論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구려는 대륙국가로만 여겨왔다. 《삼국사기》에서조차 고구려의 해양활동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사관이 뿌리 깊은 우리에게 고구려는 오히려 낯선 국가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고구려는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장악하고, 기마와 선단을 활용함으로써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전에서도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5~6세기의 고구려는 한반도를 중핵으로 한 동아시아의 지중해적 성격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적응함으로써 최대의 강국이 된 것이다. 고구려의 해양활동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21세기 동아시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윤명철 교수는 역사학을 하다보면 논문에 담을 수 없는 게 오히려 더 많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시를 쓰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고, 해양관련 영화에 대한 평을 쓴다. 이러한 외도는 그동안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금기로 통했다. 더군다나 역사학자가 과거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동아시아중핵 중핵론이라는 미래의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스님으로 치면 과거의 대상이었다.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타이타닉>은 주인공인 로즈가 노파가 돼서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101살까지 산 이유는 단지 유물이 아

니라 그 시대의 사랑까지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노파가 바로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역사학은 또한 인간학이기도하다고 말한다. 역사를 만든 건 제도나 성곽城郭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윤 교수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구려 문화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그림·음악·생활 등 고구려 문화의 전반을 재현하는 것인데 고구려 음악에서는 그가 직접 작사를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을 이은 민족의 정통성과 자유로움 그리고 그 다양성을 현대에 되살려볼 생각이다. 과거와 현장과 삶을 섞어 그 시대의 삶을 복원하지 않으면 역사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한 역사학자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글**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